

전환의 시대 삶과 화법, 화법교육을 다시 새김

J. 하버마스 '의사소통행위이론'의 체계와 생활세계 변화에 대응하여 -

이창덕

(외솔회장, 경인교대 명예교수)

죽도록 **KISS**하라

Keep It Simple, Stupid!

Keep It Short and Simple.

I. 머리말 ↵

가

II. 상생화용(相生話用), 새로운 의사소통 탐구: 상생의 언어사용, 마음의 소통 ↵

삶과 화법: 대화 메타분석 ↵

III. 의사소통행위이론: 체계와 생활세계, 의사소통 합리화 ↵

IV. 전환의 시대(디지털혁명, 인공지능 시대) 화법교육 ↵

V. 맺음말 ↵

↵

I . 머리말

21세기 격변하는 세계에서 우리가 현재와 미래에 어떤 삶을 살 것이며,
역동적으로 변하는 사회(체계와 생활세계)에 내재한 문제(갈등과 투쟁)를 넘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어떻게 소통하며 공동의 의미를 구성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
언어 중심. 교육과정 중심의 국어교육 영역 울타리를 넘어 통섭과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인지,
J. 하버마스 『의사소통행위이론』의 합리적 사회(체계와 생활세계) 의사소통 행위이론을 중심으로
바람직한, 화법교육(국어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가능성을 탐색해 본다.

Ⅱ. 상생화용(相生話用), 새로운 의사소통 탐구 삶과 화법: 대화 메타분석

“××, 왜 버릴까 보자. 재수 없어!”
가

“당신 말 다 맞아, 그런데 나 당신 싫어!”

국어학/국문학(시, 소설, 수필, 희곡, 시나리오, 평론)

국어교육학의 정체성 세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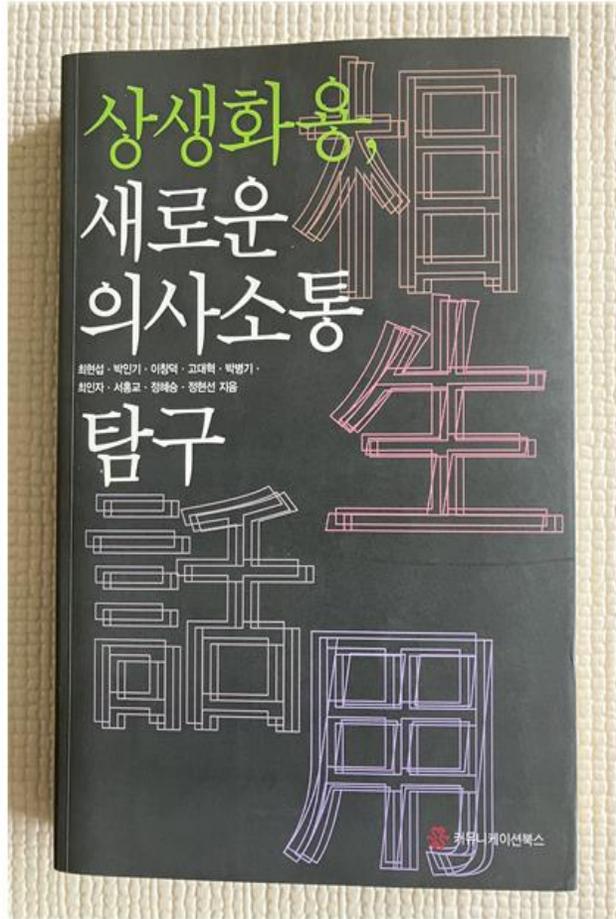
국어교육의 하위 영역(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교육)

국어교육의 구성(성격, 목표, 내용, 방법, 평가, 교재)(지식, 기능, 태도)(이론, 실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교육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교육(개인 차원)

최현섭 외(2007), 『상생화용, 새로운 의사소통 탐구』. 커뮤니케이션북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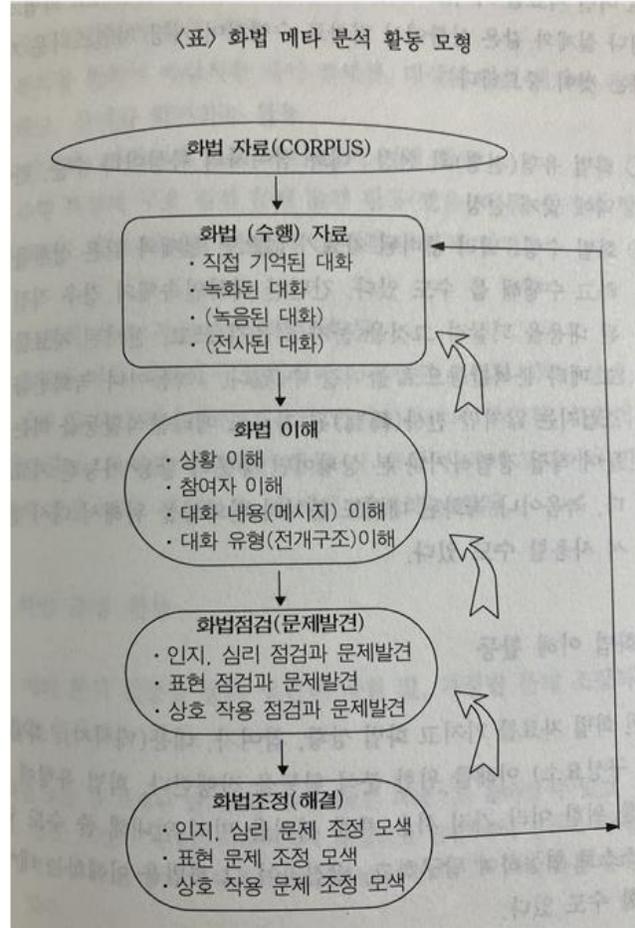


■ 상생화용(相生活用): 상생적 언어사용.

장파(張法) “서로 마주 선 채 힘 겨움을 하면서도, 남의 힘을 제힘으로 받아와 주고, 또 내 힘을 남에게 은근슬쩍 전해 주어 그를 되살려 주는” 그런 언어사용.
공존과 융합을 추구하는 언어사용.

- 생극론(生克論)
- 생태주의(生態主義)
- 유교의 휴머니즘
- 기(氣)철학
- 화쟁(和諍)사상
- 홍익인간 사상
- 생명학

이창덕, 임철성, 심영택, 원진숙(2000), 『삶과 화법』. 박이정.



- 인간 의사소통은 단선적이고 일방적인 정보처리 과정이 아니라 상호교섭적이고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한 상호작용 행위.
-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내용을 구성해서 표현하는 능력을 갖추는 화법교육으로 불충분. 학습자의 현재와 미래 삶에 긍정적으로 작동하는 화법교육.

Ⅲ. 의사소통행위이론: 체계와 생활세계, 의사소통 합리화



I

위르겐 하버마스(J. Habermas, 1929~): 비판이론 철학자, 사회이론가.

- 비판적 사회이론의 규범적 기초.
- 근대성과 사회 근대화
-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의 긴장 관계
- 근대적 법의 사회진화적 의미

『공론장의 구조 변동』

『인식과 관심』

『이론과 실천』

『후기 자본주의의 정당성 문제』

『의사소통행위이론』

『사실성과 타당성』

『이질성의 포용』

『탈민족 시대의 구도』 『자연주의와 종교』 『공론장의 새로운 구조 변동』

『의사소통행위이론』

- 하버마스는 복잡한 사회 진화를 설명하기 위해 ‘사회적 행위(의사소통 행위) 이론’을 세움. 사회적 행위를 목적론적 행위, 규범 규제적 행위, 전략적 행위들로 구분하고, 사회진화론적 관점에서 사회를 ‘체계(system)’와 ‘생활세계(life-world)’로 나누어 사회 진화를 설명. “사회의 진화는 화폐와 권력과 같은 비언어적 매체들에 의해 조정되는 체계와 의사소통이 언어에 의해 매개되는 생활세계의 분화 과정이다.”
- 사회: 체계와 생활세계. 사회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언어적 의사소통만으로 사회 구성원의 행위를 조정하기 어렵게 되고, 권력(행정) 및 화폐(경제)와 같은 비언어적 매체에 의해 구성원들의 행위 조정이 이루어짐.
 - 체계(system): 경제와 행정 등 비언어적 매체에 의해 조정이 이루어지는 행위 영역.
법, 규범, 도덕 등의 진화가 체계 분화의 선도적 역할.
 - 생활세계(life-world): 공유된 세계. 문화적 재생산, 사회화, 사회 조정과 통합 등 언어적 의사소통을 통해 행위 조정이 이루어지는 영역.
사회 구성원들에게 배경지식으로 전제되는 해석들의 총합.
- 의사소통적 합리성: 언어와 행위 능력이 있는 책임능력이 있는 주체들이 어떤 것에 관해 서로 이해 지향적 행위를 할 때 생기는 합리성.

▮ 합리성(合理性)

- 빵 6개를 4명이 합리적으로 나누는 방법?
- 합리성(rationality): 합리성은 원칙적으로 행위 능력을 가진 주체가 어떻게 지식을 습득하고 사용하는가 관련됨. 의사소통적 합리성은 객관세계를 인식하고 조작하는 데 작용하는 합리성이 아니라 언어 및 행위 능력이 있는 주체들이 어떤 것에 대해 이해를 도모할 때 성립하는 합리성. 지식 사용 주체, 지식 구현 상징 표현, 상호작용 행위에 대한 평가.
- 형식적 합리성/실질적 합리성
 - (형식적 합리성: 분명한 선호와 주어진 결정 규칙에 따라 자기 이익을 좇는 선택 합리성)
 - (실질적 합리성: 윤리, 정치, 공리, 신분, 평등 등 가치와 목적에 타당한 합리성. 실질적 합리성은 목적 설정, 수단 사용, 가치관에 따라 구별함)
- 이해 지향적 행위의 합리적 내부 구성요소: 문화, 사회, 인격(인성)
각 요소가 생활세계 유지에 기여하는 방식: 문화적 재생산(합의 가능한 해석 도식/의미상실), 사회통합(정당한 질서에 따른 인간관계 형성/아노미), 사회화(개인 정체성 확보와 상호작용 능력/심리 이상)
- 행위의 유형: 목적론적 행위(행위자-객관세계). 규범에 의해 규제되는 행위(행위자-사회세계, 객관세계), 극적행위(행위자-주관세계와 객관세계)

▮ 사회 병리 현상

하버마스는 의미상실, 자유상실(베버의 주장 인용) 등 현대사회 병리 현상은 체계 논리(법, 규범 등)가 생활세계에 침범하여 '생활세계'를 식민지화하는 데서 생기는 것으로 봄.

- 의미상실: 문화적 재생산 장애 -> 정당성 위기와 방향 상실, 문화적 비축의 기능 상실, 의미 자원 부족, 전통 단절, 집합 정체성 불안
- 자유상실: 화폐화로 인한 자유 상실(맑스)/관료제화로 인한 자유 상실(베버)/매체들의 소관 영역 범주 혼동(파슨스)
- 사회병리 현상의 치유:
 - 1) 체계의 월권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 2) 생활세계에서 주체성과 행위능력이 확보된 구성원들의 의사소통합리화와 자발적 연대 활성화
 - 문화 영역: 문화 지식의 전승, 비판, 습득
 - 사회 영역: 상호주관적으로 인정된 타당성 주장을 통한 행위 조정. 주장, 논거, 뒷받침, 제한, 반론의 타당성
 - 인성(인격)영역: 교양 지식과 사회 소속 유형의 재생산을 통한 정체성 형성

IV. 전환의 시대(디지털혁명 인공지능 시대) 화법교육

체계(학교 제도)와 생활세계(문화, 사회, 인성) 분리가 심각해지는 시대

여전히 수능과 교과 영역에 갇혀 있는 학교교육, 국어교육, 화법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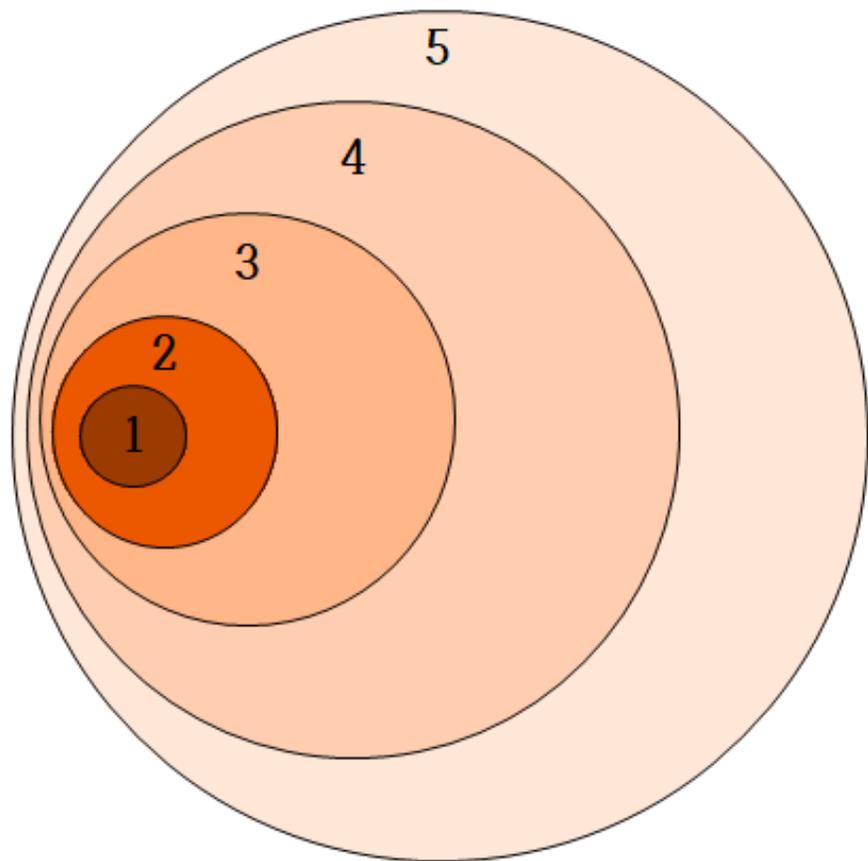
단순 구조(성격, 목표, 내용, 방법/ 지식, 기능, 태도/이론, 실제)

제한적 담화 유형(정보전달, 설득, 친교, 정서표현/발표, 연설, 토의, 토론, 협상)과 포괄적 선언 차원 교육

교과와 언어 차원을 넘어 사회 체계 모순과 억압을 극복할 생활세계 복원과 소통합리성을 강화하는 교육

이성(소통합리성)을 가지고 사회 병리 현상을 주체적으로 극복하는 책임능력 있는 사람을 길러내는 국어교육

화법교육의 영역 확장과 차원



1. 화법(듣기, 말하기) 내용을 다루는 화법교육
2. 화법, 독서, 작문 내용을 다루는 화법교육
3. 화법, 독서, 작문, 문법, 문학 내용을 다루는 화법교육
4. 국어 이외 교과교육 내용을 다루는 화법교육
5. 사회, 인간, 영혼, 세상, 우주를 다루는 화법교육

수능시험의 국어교과 '킬러 문항' 금지?

(언어를 넘어, 문화, 사회, 인성을 다루어야)

V. 맺음말

사회 의사소통 행위 합리화를 이룰 주체성 있는 참여자를 길러내는 화법교육, 국어교육

- 생활세계 합리적 공론장의 붕괴 깨달음과 복원

(문제 인식과 차이를 극복하는 타당한 논거, 뒷받침, 제한, 반박 과정 거친 이해, 타협, 합의)

- 체계 분화 심화와 생활세계 식민지화(경제, 정치 권력의 편중과 피동적 소비, 무관심, 아노미, 심리이상) 해결

- 세계(객관세계, 사회세계, 주관세계)지식의 합리성 강화, 구성원들의 연대, 개인 책임능력 강화

고맙습니다!